

그림을 위해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100 x 120cm, 2026 년, 캔버스에 유화

이 전시는 한반도 분단 73주년을 기념한다. 73년, 긴 시간이다. 그간 여러 세대가 지나갔다.

이 주제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30년 전에 제작한 사진 작업 하나가 떠올랐다. 사진집 《작업실로 가는 길에 대한 메모 (Remarques sur le chemin à l'atelier)》에는 1950년대 모더니즘 주거단지 입구의 사진이 실려 있다. 낡은 콘크리트 표지판에는 "어린이 2천 명이 있으니 서행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궁금하다.

[to the project on the website](#)

그 표지판이 세워진 지 30년~40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Je n'ai aucune idée de qui était Marcel Cachin, dont cette cité porte le nom, cité intéressante pour étudier les concepts modernistes des années cinquante. D'ailleurs je me demande que sont devenus les deux mille enfants pour lesquels le panneau de l'époque recommande de rouler doucement.

1993/94 년 전시회 "pensees du dehors" 카탈로그에 실린 그림과 해설(프랑스어).



2010 년경 같은 장소의 현대 사진 옛 간판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

이 단지의 이름이던 마르셀 카상 (Marcel Cachin) 이 누구인지도 궁금했지만 당시에는 알 길이 막막했었다. 그런데, 오늘날엔 구글과 위키피디아가 몇 초 만에 알려준다. 마르셀 카상은 프랑스 공산당의 창당 멤버이자 《뤼마니테 (L'Humanité : 공산주의 이념 전파와 결집의 도구로 기능한 언론, 현재도 발행 중)》지의 편집장이었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고, 변하고, 나이 들어간다.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고, 동시에 그 시대와 사회의 조건을 반영한다. 분단 독일에서 자란 나의 어린 시절에도 동독과 서독의 놀이터는 달랐다. 놀이기구의 디자인부터 차이가 있었다. 남북한의 놀이터도 다를 것이다.

동독에서는 로켓 형태의 놀이기구를 볼 수 있었다. 우주 경쟁, 군사력, '진보'를 기념하는 형상이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강한 열망을 가졌던 영역들이다. 이런 놀이기구는 이미 가장 어린 세대에게 이념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동독에서는 로켓 형태의 놀이기구를 볼 수 있었다. 우주 경쟁, 군사력, '진보'를 기념하는 형상이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강한 열망을 가졌던 영역들이다. 이런 놀이기구는 이미 가장 어린 세대에게 이념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그런 놀이터에 길들여지며 자란 아이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들 중엔 어린 시절의 추억 때문에 여전히 연결감을 가지고 있다. 낡고 손으로 제작된 옛 놀이기구를 기록하고 보존하거나 복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사진의 사람들이 그렇다 ->)



내 그림은 낡고 녹슬고 시대에 뒤쳐진 놀이터를 보여준다. 오래된 아파트 건물들 사이 안뜰에 있는 놀이터다. 왼쪽 건물은 북한 건물이다. 옥상에 선전 문구가 적혀 있다. 오른쪽 건물은 외벽에 에어컨이 달린 낡은 한국 아파트로, 현재 철거 예정인 건물이다. 뒤편의 녹색 건물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충정아파트에서 착안했다. 이 건물도 올해 철거될 예정이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다. 많은 아이들이 놀았다. 그들은 나이를 먹고 떠나갔다.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